

# 뉴욕의 한적한 모퉁이에서 펴든 책

## 2 여인과 책, 뉴욕커

정진국  
미술평론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기어코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없었다면 이 배경, 저 햇살과 화강암의 기둥들이 여기가 맨해튼이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리의 전경을 막아서는 기상천외한 오토바이들과 건물의 전면을 호위대의 휘장처럼 두르고 있는 비상계단들이 눈에 띄지 않는 한 그 곳은 미국의 대도시답지 못하다.

### 뉴욕커의 아찔한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그 건축적 구도에 어떤 강조점이 되려는 데에는 그토록 쾌적해 보이기에는 하지만 왜 하필이면 거기 앉아 책을 읽는 것일까. 저 광장쪽에 비해서는 놀랍도록 한적한 링컨 센터의 한구석에서 나긋나긋한 책읽기를 방해한 듯하여 미안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자리를 서재로 삼은 여인이 없었으면 나 역시 따분한 산책으로 그 날을 마감했을 것이다. 어설픈 상부상조이다.

팝아트의 우렁찬 허풍과 역설이나, 총잡이들이나 갱스터, 광활한 서부와 옐로우 캡이 요리조리 꼬리를 감추는 마천루 숲의 이미지들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이런 한적함이 쉽사리 아메리카의 얼굴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미시시피 늪가에서의 느긋한 포옹이나, 마이애미 해변에서 일광욕과 함께 르누아르의 <책읽는 여인>을 천박하게 흉내내려는 비키니 미녀들이 더 미국적일 것이다. 링컨 컨티넨탈과 롤러 스케이트가 서로

공둥이를 스치며 뒤뚱거리는 도심의 소란을 피한 한적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웬지 독서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다. 마약판매, 벌건 대낮의 강간 혹은 밀회가 더 그럴싸하지 싶다. 우리네 같으면 신혼부부의 기념촬영 장소로, 이미 한적하다고 하자마자 북적대기 시작했을 것이고.

책은 패션을 지적으로 마감해주는 감칠맛나는 소품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뚱뚱은 모자에 거창한 목걸이, 그리고 선글래스에 책을 든 여인들이 심심치 않게 눈 앞을 가로막아서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이었으니까. 그야 물론 아직까지도 책과 관련해서 뉴욕커의 이미지를 아찔한 한 장면으로 잡아왔던 것으로는 프랑스 사진가 레몽 드파르동이 포착했던, 골목에서 포르노 잡지를 엿구리에 끼고 있다가 흠칫 놀라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피하던 한 정장 신사의 모습이다. 누가 청교도의 후예가 아니라고 할까봐서?

어쨌거나 타임 스퀘어와 센트럴 파크 주변에서, 메이시 백화점과 소호의 화랑가에서, 분초를 다투며 튀어나오는 쌍소리와 제멋대로의 차림새로 이방인의 시청각을 괴롭히던 그런 곳에서, 엇비슷한 차림새로 친근감을 보여준다는 데에 유행의 순기능, 그 순하다 순한 역할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진 속에서는 독서하는 사람에 앞서 책이 먼저 필수품으로 등장했다. 19세기 중엽

의 일이다. 마치 그리스 조각들이 그런 행보를 거쳐 눈부신 비너스의 자태에 이르렀듯이, 처음에는 단지 테이블 위에 명칭히 놓여 있는 것에서 시작하다가 페이지가 펼쳐지더니, 그 위에 모델의 팔이 올려지고, 마침내는 그의 손에 들리고 그의 그윽한 시선을 받게 되는 자연스러움에 이르는 데에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실리가 명분을 물리치는 데에 걸린 시간이다.

### 독서하는 여인상

서구 이미지의 세계에서 굳이 성적인 구분을 하자면 책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였다. 19세기 화가들이 다투어 독서하는 여인들을 새로운 시대의 여인상으로 불멸화하려고 유향화 그렸지만, 남자의 이미지는 술마시는 사람이나, 뱃놀이·카드놀이하는 사람이었지, 책읽는 사람은 아니었다. 성자(聖者)들의 시대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책읽는 사내들도 이미지의 세계에서 추방되었다.

그렇다고 독서하는 여인들의 이미지가 그려졌던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인네들은 아이들의 독서를 돕는 모습으로만 묘사되었지 독자로서의 주체가 못되었다. 그러나 예외라는 필연도 있다. 오직 성모 마리아만이 책을 무릎에 올린 모습으로 그려진 적이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에게 '수태'를 '고지'하는 초기 르네상스의 그림들에서는 작은 책자로 그려진 성경이 종종 등장한다.

시에나 미술관에 있는 암브로지오 로렌제티의 그림에서는 그 정원에 바람이 불어오기라도 하는 듯이 성모의 무릎 위에서 책장이 펼쳐지고 있다.

한 손을 이 성스런 책 위에 올려놓은 성모를 그린 것도 있다. 가장 빼어난 '수태고지'상을 남겼다고 칭송되는 수도원장 프라안젤리코의 벽화에서는 가슴을 두 손으로 다소곳이 감싼 채 천사의 소식에 귀기울이는 성모의 무릎 끝에서 이제 막 책이 미끌어져 내릴 듯한 찰나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베를린 미술관에 있는 피에로 폴라이올로의 판자에 그린 템페라에서 정녕 책장 위로 떨어지는 성모의 시선을 느낀다. 휘황하게 과장된 원근으로 실내가 급작스레 커보이는 (마치 사각의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컨디션이 좋으면 링이 커보인다고 고백했던 어떤 챔피언의 환영(幻影)이 바로 이런 것이라라고 짐작해보면서) 배경 앞에서 그 기적적 스펙타클의 평음을 일축하려는 듯 화면의 또다른 중심을 지탱해주는 작은 미니어처에.

책의 표지를 넘기기가 무섭게 튀어나오던, 책을 맞잡고 공중에 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책은 이렇게 신성한 소품의 몫을 다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그려졌다고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시청각적 문화와 비슷하게, 작은 라디오, 신의 계시가 울려나오는 작은 확성기나 테이프레코더처럼 그녀의 무릎 위

### 주요취급간행물

- 신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 외
- 시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 외
-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 외 다수
- 패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 외
- 기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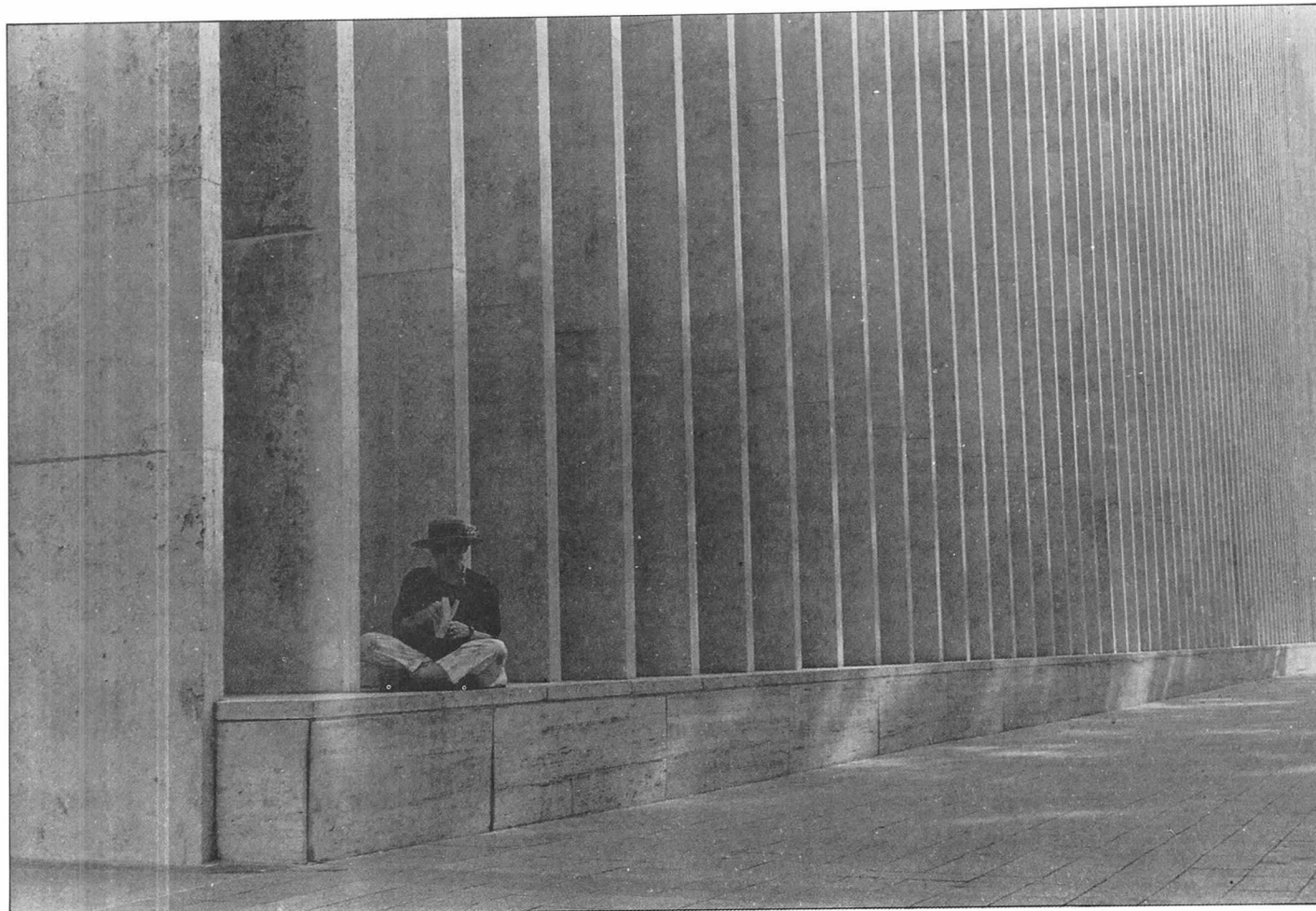
### 세계의 신문·잡지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 (02) 735-5401/3
- FAX주문 :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



책은 패션을  
지적으로 마감해주는  
감칠맛 나는 소품이다.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챙 넓은 모자에  
거창한 목걸이,  
그리고 선글래스에  
책을 든 여인들이  
심심찮게 눈앞을  
가로막아서곤 했다.

미국 맨해튼의 링컨센터에서  
(사진 정진국).

에 머무르고는 했다. 천사의 시선과 성모의 시선을 두 꼭지점으로 한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으로.

### 고독이 담긴 일상의 잔영

그러나 뉴욕의 이 한적한 모퉁이에서 책을 펴들고 있는 여인이 그녀의 시선을 책 위에 던지면서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은 천사의 시선이 아니라 고작해야 사진찍는

사람의 짓곳은 윈크, 카메라 파인더 옆에서 불가불 지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윈크일 뿐이다. 그녀가 모든 도덕의 허구성과 윤리를 비웃는 '로망'에 심취한 끝에 미혼모가 된다 한들 그녀를 성스런 동정녀로 치켜세워줄 천사는 없다. 신이 죽었다는 세상에만 있는 허전함이다.

성경이 세속적인 이야기책으로 바뀌고, 우리가 신의 말씀에 다소곳이 귀기울이는

종이 되는 대신, 이런저런 당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리를 골라 읽는 즐거운 독자가 되면서, 책을 통한 기적 또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만화로 풀이한 성경이나, 정신분석학 또는 자본주의를 읽으면서 우리는 진지한 고뇌를 심심풀이로 삼을 수 있는 멋진 신세계에 살게 되었다. 아무리 심도깊게 조절한 렌즈로 늘어선 기둥들의 원근을 강조하고,

햇살의 눈부신 반사를 대조가 뛰어난 인화지로 새겨내고, 마침내 그녀의 자태가 유행가처럼 멋지다고 할지라도 그 이미지에는 기적적인 사건을 알려주는 어떤 '고지서'도 날아들지 않는다.

일상의 잔영(殘影), 천사가 아닌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고독만이 그 그림자를 남길 뿐이다. ❖

## 지성의 샘은 이런 책을 만듭니다

### 세계의 철학

- |             |                           |
|-------------|---------------------------|
| 1 이탈리아 철학   | 이광래 외 편저                  |
| 2 스칸디나비아 철학 | J. S. M. 저음<br>임규정의 옮김    |
| 3 라틴아메리카 철학 | H. E. 데이비스 저음<br>우정규 외 옮김 |
| 4 아프리카 철학   | '97년 출간(2차분)              |
| 5 러시아 철학    | '97년 출간(2차분)              |
| 6 동구권 철학    | '97년 출간(2차분)              |
| 7 중동 철학     | '97년 출간(2차분)              |

### 그리스 과학사상사

로이드 저음/이광래 옮김

철학적 사고와 과학이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으며 그리스 철학이 사고의 추상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실용적·실증적 과학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 과학사상을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신국판 248쪽, 7,000원)

### 독도와 대마도

한일관계사연구회 저음

독도와 대마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영토인식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 재검토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최초의 독도 대마도에 관한 저서. 연표 및 독도와 대마도의 고지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신국판 296쪽, 10,000원)

### 드라마 작품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인식

하인츠 가이거 외 저음/임호일 옮김

언어를 존재론적 산물이 아닌 사회·역사적 산물로 봄으로써 희곡의 본질 규명에 획기적인 시각을 제시한 이 책은 부록으로 원문이 발췌되어 있어 희곡사의 발전을 넓게 조명해 볼 수 있다.  
(신국판 224쪽, 8,000원)

### 니체와 니힐리즘

하이데거 저음/박찬국 옮김

하이데거는 니체를 근대 형이상학의 정점으로 보며 이에 니체가 있어서 니힐리즘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에서 그는 니힐리즘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것의 극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 392쪽, 13,000원)

도서출판 **지성의샘**

133-120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7 서울제일인쇄조합 301호  
전화/(02)4989-011~6 팩시밀리/(02)4989-017 HITEL ID Dymh4989 천리안 ID DM96002